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믿음의 실천 믿음의 삶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호혜(창 2:7)에 맞추어 사는, 산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생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갈 2:20) 믿음의 실천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혈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청신을 차릴 지라”(살전 5:6)

평계와 게으름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 믿음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이번 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13,16일)에 꼭 참여하여 교회주변의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십시오. 수요일예배(11:00, 19:30)와 금요찬양집회(19:30) 그리고 시원한 새벽공기를 마시며 새벽기도회(5:00)에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또한 교회학교의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변을 살펴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십시오”(출 34:9)

*2008년 하반기 충헌강화생 명단은 본지 7면 참조

감사의 삶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누가복음 18:9~14)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합니다. 감사는 육신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의 감사는 둘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갈 5:17) 여러분은 진실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구원 믿음을 감사하라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실일조를 드리나이다”(11~12절)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감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적한 것들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믿음 자체가 선물입니다.(엡 2:8~9)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13절)

생명 이음을 감사하라

바리새인은 세리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가슴에는 교만이 팍팍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생명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리가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온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는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구원에 대해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에 감사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주의 선하심에 감사한다면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에 대해 감사한다면 그 교제의 지경을 넓혀갈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을 배려했습니다. 세리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13절) 세리는 자신

보다 남을 낮게 여겼던 것입니다.

은총을 통한 새 삶을 감사하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큰 은총의 장소인 성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채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아무런 변화 없이 떠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개인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육에 속한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직시했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13절)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춘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세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용서와 의뢰의 함을 받고 돌아간 것입니다.(14절)

세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9~10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어떤 양의 피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까? 모든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에 진실로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REAL MESSAGE THROUGH MIRACLE

⁽¹⁾Now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ninth hour, the hour of prayer. ⁽²⁾And a man who had been lame from his mother's womb was being carried along, whom they used to set down every day at the gate of the temple which is called Beautiful, in order to beg alms of those who were entering the temple.

⁽⁹⁾And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¹⁰⁾and they were taking note of him as being the one who used to sit at the Beautiful Gate of the temple to beg alms,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Acts 3:1-10)

Many of today's Christians, like believers of old, are always looking and asking God for some kind of miracle, but they do not get the message. The first miracle after Pentecost was the healing of a lame man from birth. You will remember that Acts 1 described Christ's call to wait for the coming Holy Spirit (vv. 4-8), Acts 2 began with the Holy Spirit's coming on Pentecost (vv. 2-4), and ended with the result of the Holy Spirit's power as shown through Peter's sermon that brought over 3,000 people to faith. (v. 41) The start of Acts 3 vividly describes the first miracle that took place after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upon believers. A man who had been crippled all his life was given the ability to walk, jump, and run. What was the message given through this miracle?

The Bible tells us that Peter and John were headed toward the temple to pray around the "ninth hour." (v. 1) This was the time associated with the evening sacrifice. When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just before His death, the temple curtain was torn in two. (Mt. 27:51) This curtain separated the Holy of Holies from the rest of the Temple. Its separation signified that the new and living way was now open into the presence of God. Everyone is now able to come into the Holy of Holies through faith in Christ. Peter and John were headed into the Temple to pray and announce Christ's sacrifice to pay for our sins. Prayer makes miracles possible and our message powerful.

The lame man went to the temple to beg, "And a man who had been lame from his mother's womb was being carried along, whom they used to set down every day at the gate of the temple which is called Beautiful, in order to beg alms of those who were entering the temple." (v. 2) His feet and legs had not worked properly all his life. His situation is really not that different from ours, for we all walk lamely because we are sinners. We are all born as sinners. Romans 3:10 tells us,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Romans 3:23 even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The purpose of this lame man was not to go to the temple to pray and ask God for help, but rather to beg and ask people for help. He relied on other people's sympathy and generosity for his survival. Unlike Peter and John, who came to church to pray, this lame man came to church to beg and get earthly things. Do you come to church to pray? Do you come wanting to get earthly things like the lame man? If you ask for earthly things, you have to keep asking and asking because earthly things do not satisfy the human soul. This lame

man needed something the world could not give him. You need something the world cannot give you.

Through the miracle the lame man received the message. "When he saw Peter and John about to go into the temple, he began asking to receive alms. But Peter, along with John, fixed his gaze on him and said, 'Look at us!' And he began to give them his attention, expecting to receive something from them." (vv. 3-5) Peter recognized the beggar's true need, even though the beggar himself did not realize it. Peter gave the lame man a real message through the miracle. Peter had a greater gift to be given, "But Peter said, 'I do not possess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ne—walk!' And seizing him by the right hand, he raised him up; and immediately his feet and his ankles were strengthened." (vv. 6-7) Many of today's theologians, pastors, and Christians look for the miracles of success, wealth, and fame. They ask the Lord for these things, but they do not have the name of Jesus. Actually, they are more interested in getting something rather than giving something. With the gospel message we can save others from sin and shame. This lame man was now healed, "With a leap he stood upright and began to walk; and he entered the temple with them,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And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and they were taking note of him as being the one who used to sit at the Beautiful Gate of the temple to beg alms,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vv. 8-10)

What is going on with you? You come to church and say you want to truly worship and praise the Lord God, but your prayers reflect your own earthly desires. You ask the Lord for wonderful miracles, but do you really experience that you have Jesus in your heart? Look at Peter's life. After following Christ for more than three years, just as Jesus was about to take the cross, his desire was for the best position. After Pentecos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eter was Jesus Christ. He proved, explained, and preached Christ. His great sermon starts in Acts 3 and ends in Acts 4. He told the crowd about Jesus Christ. The miracle gives us the opportunity to get the real message. The miracle created an opportunity to preach the gospel. Whenever today's pastors get the opportunity what do they do? They show the crowd how great they are by their knowledge and speech. We ought to seize the opportunity to tell others only of Jesus Christ. Salvation is the greatest miracle of all! Amen. 🙏

기적이 주는 참 메시지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1~10)”



김성완 목사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의 신자들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담겨진 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강림 후 첫 번째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4~8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경강림으로 시작하여 (2~4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 명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1절) 사도행전 3장은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처음으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 시”경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절) 이 시간은 저녁제사 시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마 27:51)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 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포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에 갔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2절)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10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23의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에 갔던 목적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사람들의 동정심과 그들이 주는 돈 몇 톨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 요한과는 달리 이 사람은 구걸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오십니까? 혹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처럼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소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

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은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었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참 메시지를 깨달았다

기적을 통해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은 참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기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가 하여 바라보거늘” (3~5절) 베드로는 걸인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의 참 필요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그에게 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소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6~7절)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부, 명예라는 기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런 것들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무언가를 주는 것보다 얻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죄와 수치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8~10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임으로는 교회에 와서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적인 자신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3년 넘게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가 구했던 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강림 후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설교는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하여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언변술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니 과시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건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아멘. ■

성경이 답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악의 문제

역사는 우연하게 그저 생겨지는 것은 아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단 2:21; 합 1:6) 그러므로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제림과 그가 통치하실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하신다. 성경에서 보는 역사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목적과 인간 자유의지의 실체를 보여준다.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어느 역사라도 이러한 오점을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갈 2:20; 빌 2:12~13) 우리를 각자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이다. (요일 1:5, 4:9)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만일 이것이 진리라면 이 세상, 곧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은 아닐까?

악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연적인 재앙이요,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악이다. 지진이나 홍수, 많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과 고통의 불행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한다. (시 73:2~3)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고통을 당한다. (계 8:8~9) 악육강식 즉, 악한 자가 강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악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반역이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죄(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모든 것)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인간이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인간이 지옥에 빠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줄 아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인간이 돌로 갈라지서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을 아셨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신인가? 도덕적인 악은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잔인한(전쟁, 육신과 질투, 증오, 자존심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모양의 도덕적인 죄와 그로인한 고통과 파멸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

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약화시키거나 악의 실체를 부인하는 오류를 만들었다.

오직 성경만이 악의 근원과 우주 안에 퍼져 있는 악의 궁극적인 파멸에 대하여 대답을 주고 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 안에 놓여 있다. 전지전능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참 자유의지를 소유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하여 태생된 창조물은 그의 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로인해 나타난 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창 2:16~17)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죄를 만들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마귀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세계 안에 악이 들어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까지도 그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데에 쓰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포함시킨 모든 계획을 고안하신 분이지만 결코 죄를 범하는 데는 책임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셨고, 왜 악이 그의 완전한 창조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계획 안에 비록 악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큰 선을 가져올 것을 알고 계셨다.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구속자로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 주실 수 있는 완전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계획을 택하신 것이다. (암 3:6; 사 45:7)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만 악을, 죄를 범한 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죄를 범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하나님은 재앙을 죄를 범하시는 데 쓰기도 하셨다. (삼하 16:21~22; 계 17:17)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여서 죄악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으로서의 심판주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롬 3:5~6)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대답하실 수가 있다. (사 40:13~14; 욥 40:2)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폭군과 같이 인간의 유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독재자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죄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막 10:18; 삼상 2:2)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청년2부

청년2부에는 40세 이하의 기혼과 35~40세의 미혼인 지체들이 함께합니다. 세상이 범람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에 휩쓸리거나 쏠리지 가치관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들 속에 파묻혀, 오류에 대한 각각으로, 치열한 쫓겨남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삶이 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실존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는 지체들이 모입니다.

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워졌느니라" (엡 2:13)

청년2부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의 대당이 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청년2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가슴을 찢는 참된 회개와 말씀으로 거듭나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한결을 한 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주 속에 모래알 같이 작은 우리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연결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두 세계에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영광으로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실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아멘.



이세형(장로, 청년2부장)

부인 중에는 주일1·2부찬양대와 영아부를 비롯해 각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한 후 참여하는 지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원들 중 팀장, 조장으로 구성되며, 면회하는 행사준비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3부예배가 끝난 뒤 12시 15분에 본교 회를 시작합니다. 유모차를 끌거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집회실로 들어서는 부원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집회의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의 중심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흥을 꿈꾸는 천국일꾼들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신나고 즐거운 여름성경학교에 다녀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수빈이도 데려갔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흥'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성경학교는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찬양과 율동, 바이트, 성경도전 골든벨, 성경게임 등 즐거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기 때문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친구 수빈이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게요.'

위유니스(유년부)



예수님과 사이가 정말 좋아진 것 같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여름성경학교에 왔다. 성경학교의 주제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이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시고, 열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느꼈다. 웬지 예수님과 내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프로그램 중에서 '복합 릴레이'가 제일 좋았다. 왜냐하면 나는 친구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게임을 한다는 게 기분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과 사이가 정말 좋아진 것 같다.

이유진(초등부)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

7월 29일 화요일, 여름방학 시작부터 기다리던 여름성경학교가 있는 날이었다. 부족하지만 기도로 준비한 여름성경학교라 그런지 더욱 기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바라는 목사님의 설교말씀, 선생님들과 함께 한 성경공부, 그리고 이런 마음을 담아 만든 초청장. 그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한 미니올림픽과 성경퀴즈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미니올림픽에서 우리조가 한 경기 빼고는 다 저서 서운했다. 하지만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며, 교회에 안 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더욱 부흥시켜야 함을 알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나예지(초등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실 나는 이 글을 쓰기도 전에 당황했다. 소말풍을 쓴다는 것은 내게 참처럼 느껴졌지만, 곧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정말 기쁘고 감사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지금까지 보내온 성경학교보다 비록 짧지만 가장 은혜롭고 귀중한 시간이었다.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왔는지 뒤돌아보니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죄인임을 깨닫

게 되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과 앞으로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특히 말씀을 듣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다. "세상 끝 날까지 예수님이 주신인 교회는 남으리라"라는 말씀을 읽고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잘 알고 모시고 순종하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중창단의 일원으로 폐회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는 너무 은혜스러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 성경학교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기쁘고 은혜로운 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중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김한빈(소년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1박 2일

겨울, 여름 일년에 이렇게 두 번씩 친구들과 더 보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의례적으로 참가하던 수련회가 이번에는 내겐 너무나 특별하였다. 다리를 다쳐 비록 몸이 아주 건장치진 못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은혜도 많이 받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1박 2일이었다. 특히 부흥회시간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죄 많은 나에게 너무나 하고 싶은 친구들을 보내 주셨으며 휠체어를 나를 태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도와준 친구들을 보내 주신 주님께 정말 너무 많이 감사하였다. 1박 2일이 짧지만 엄청 짧은 시간이었으나 안전하고 사고 없이 기도원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희진(초등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

나는 다음 주에 단기선교를 가는데 자기부인을 하지도 못하고 고요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꼈으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부흥회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못된 나를 선교에 보내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써 주신다는 것을 느껴 감사하였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번 성경학교는 그 어떤 성경학교보다 값지고 특별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느낀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은미(중등1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전파

처음 교회에 도착해서 수련회일정표를 보았을 때 은근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보였다. 기도원에 도착하니 무언가 감화가 새로웠고 기도원이 많이 새로워져서 실레었다. 처음에는 서로서로 서먹하고 어색하기만 했지만 저 친구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감동이 되고 고마웠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셨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도 하셨다. 나는 이 참된 복음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전파하고자 한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전혀 믿지 않는 이방나라에 전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2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도리어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것을 보고 나도 그런 시련 하나하나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되길 기도한다.

김태정(중등2부)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면

'공명광명'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출발한 나는 교회 선생님의 도움으로 기도원을 가던 중 웬지 모르게 실레었다. 아직까지 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안가고 나중에 가면 되겠다!'하는 생각에 그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이 서었다.

처음에 부흥회가 그리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일일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나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그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했던지 만나지지는 못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발을 씻기다가 할 때 당황했던 것처럼 나 역시 당황했던 것 같다. 다음날 새벽예배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후 신양특강을 들었는데 내용은 흥미로웠다. 창조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비교해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재미있고도 놀라웠다.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놀랍고도 신비스러웠다. 수련회를 통해서 나는 깨달은 것도 있고 결심한 것도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반드시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고.....

장성민(중등2부)

땅 끝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여, 이 생령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년 한 번 이상의 해와 단기선교 사역을 통하여 세계열방을 향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배려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여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문과 간구서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소망하는 가나안이다.

8명의 선교팀원들이 3개월 간의 기도와 팀훈련 그리고 7일간의 복음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 속에서 일제해방은 성령님의 크신 사랑의 은사를 깨닫았다. 주님은 선교 위원회와장에서 영적으로 나타내시고 교만한 우리의 심령에 대한 주님의 단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열과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 성교회는 이제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자신의 심령과 열매,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께 항복복종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특히 '한센병자' 수용마로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내희는 이 세상 끝 날까지 내가 명하는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리라."는 주님의 용서에 순종하기에 가능한 사역이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선교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내 속"에 돌쳐된 군여지는 어느 강박한 자야를 깨우치고, 선교의 모든 일정 속에 임재하여 주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조동일(집사, 16교구 5지역팀)

주님의 동행 그리고 넘치는 은혜

단기선교팀이 구성되고 여러 가지 훈련과 심사를 통해 팀장들을 비롯하여 팀원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특히 1인 1명 정도는 선교를 위한 전도가 아냐고 한 영혼을 사귀려는 마음으로 팀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도를 했다. 우리 팀은 주님께서 하계 하심을 믿고 영혼을 건지는 열심과 철저한 자기부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복을 얻음에 전히기로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였다.

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우리 팀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예정과 달리 새로운 운전기사를 만났는데, 사역기간 동안 예배 및 경건의 평가회를 함께 하여 은혜가 축산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거의 매일 조금씩 바나나를 배워 왔는데 오히려 사역 활동이 하는 데는 좋은 평가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전전도 사역을 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공의 무릎말씀, 수상미물, 학교, 고아원, 상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를 외치며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일함을 주강하시어 열결기도를 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

어는 사립학교에서 한 초등학교를 만났다. 그는 예수님을 믿다고 했고, 전도지도 또박또박 잘 읽고 찬양도 참 잘 불렀다. 그는 보여주던 노트에는 예수님의 교회와 십자가 그리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참으로 은혜로운 순간이었다. 다음날 다른 사역자로서 우연히 그 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우리 팀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집으로 가서 누나와 동생과 함께 말씀과 찬양을 나누었다. 이웃의 아이들도 모여들어 은혜롭게 찬양을 불렀다. 그는 우리 팀을 계속 따라다니며 전도지를 다른 영혼들에게 읽어주며 집안마다 우리 팀의 일원이 되었다. 헤어질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고 전도지를 한 움큼 받았다. 이처럼 선교사역 기간 내내 우리 모든 일정을 두텁게서 동행하고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편히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 주님의 교회와 하나 둘씩 세워질 교회를 체험한 은혜로운 사역이었다.

이창호(집사, 11교구 4지역팀)

땅끝에서

어름의 자리에 빛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넉넉히 채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더니
하늘과 땅 맞닿은 곳
여기가 땅끝언가!

꽃을 사랑하고 지으신 이여
어눌한 자들이 눈물로 피운 편지 읽으시고
착한 꽃씨 방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향기 마르지 않게 하옵시고
마르지 않는 강물 흐르게 하옵소서!

목마를 서럽게 견뎌온 틈틈이
 움출 수 없는 날개 짓 작은 나비
 거친 바람 짙은 구름 악몽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은 귀
 저걸 어쩌나 누가 나설까

정운출(안수집사, 24교구 7지역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8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1(월)~8월 16(토)	중등2부 3팀	정진근
8월 11(월)~8월 16(토)	15교구 3지역	이흥기
8월 11(월)~8월 16(토)	15교구 6지역	최민석
8월 11(월)~8월 18(월)	4교구 6지역	김영모
8월 11(월)~8월 19(월)	13교구 6지역	오동혁
8월 12(화)~8월 20(수)	23교구 6지역	한홍연
8월 14(목)~8월 21(목)	예배다부 1팀	변창대
8월 14(목)~8월 21(목)	예배다부 2팀	윤영범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4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4일(월)~8월 13일(수)	임유열찬영대 팀	이현진
8월 5일(화)~8월 13일(수)	9교구 3지역	이정훈
8월 5일(화)~8월 13일(수)	4교구 1지역	박승우
8월 5일(화)~8월 13일(수)	20교구 7지역	박종훈
8월 5일(화)~8월 13일(수)	22교구 3지역	김성주
8월 6일(수)~8월 14일(목)	2교구 1지역	최해진
8월 7일(목)~8월 14일(목)	2교구 1지역	최상진
8월 7일(목)~8월 15일(금)	15교구 7지역	유종석
8월 7일(목)~8월 15일(금)	23교구 2지역	유재훈
8월 7일(목)~8월 15일(금)	23교구 7지역	문광안
8월 8일(금)~8월 16일(토)	3교구 2지역	안준호
8월 8일(금)~8월 15일(금)	4교구 4지역	김윤환
8월 8일(금)~8월 15일(금)	6교구 5지역	최용길
8월 9일(토)~8월 16일(토)	17교구 2지역	김영복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9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8일(월)-8월 5일(화)	충천북저곡 1팀	최상기
7월 28일(월)-8월 5일(화)	10교구 7기역	정문호
7월 28일(월)-8월 6일(수)	13교구 4기역	김철남
7월 28일(월)-8월 6일(수)	14교구 3지역	서영환
7월 28일(월)-8월 5일(화)	17교구 1지역	이선호
7월 28일(월)-8월 5일(화)	21교구 6지역	유병수
7월 28일(월)-8월 5일(화)	22교구 2지역	전종훈
7월 28일(월)-8월 4일(월)	24교구 8지역	이인원
7월 29일(화)-8월 5일(화)	3교구 3지역	김 경
7월 29일(화)-8월 6일(수)	10교구 4지역	이창희
7월 29일(화)-8월 6일(수)	20교구 2지역	강만수
7월 30일(수)-8월 6일(수)	10교구 6지역	최영민
7월 31일(목)-8월 7일(목)	5교구 9기역	김영주
7월 31일(목)-8월 8일(금)	8교구 6지역	김찬현
7월 31일(목)-8월 8일(금)	7교구 1지역	박용기
7월 31일(목)-8월 8일(금)	8교구 4지역	이경환
7월 31일(목)-8월 8일(금)	8교구 6지역	김석선
8월 1일(금)-8월 8일(금)	17교구 3지역	박산산
8월 1일(금)-8월 8일(금)	8교구 3지역	최동삼
8월 1일(금)-8월 9일(토)	8교구 5지역	윤병식
8월 1일(금)-8월 9일(토)	11교구 6지역	김동희
8월 1일(금)-8월 8일(금)	16교구 4지역	김봉화
8월 1일(금)-8월 9일(토)	17교구 3지역	최경화
8월 1일(금)-8월 9일(토)	17교구 5지역	남종호
8월 4일(월)-8월 9일(토)	중동2부 2팀	임병준
8월 4일(월)-8월 9일(토)	고동부 3팀	박노익
8월 4일(월)-8월 9일(토)	고동부 4팀	박현선
8월 4일(월)-8월 9일(토)	중동1부 3팀	송영복
8월 4일(월)-8월 9일(토)	중동1부 4팀	김태영

2008년 하반기 충현장학생 명단										
대학원생 (22명)					조친영 조한규 지석현 차병철 천애나 최안나					
강은미	김명철	김연희	김지희	김진옥	김희영	추수철	한영아	형윤옥	홍승훈	황애리
나소영	류원현	박이석	백수현	서해덕	유미경					
유재혁	윤은희	이미영	이복희	이승규	장 작					
정미선	천명기	최애슬	최윤경							
대학생 (113명)										
강 건	강문구	강부희	강지원	고혜진	고홍섭	고흥학생 (86명)				
곽동섭	곽현구	권도형	권동희	권마리슬	김남우	고영규	공예원	공진규	곽해원	김기태
김대혁	김도현	김도홍	김동석	김동순	김민수	김사무열	김소라	김유용	김정연	김지수
김상은	김성해	김소담	김소라	김예스터	김영민	김지운	김지현	김지일	김태희	김하은B
김영훈	김예진	김요한	김용현	김우섭	김수원	김한나	김현철	김형훈	남기훈	남은혜
김윤경	김윤영	김재현	김지선	김지원	김지윤	문상희	문영광	문정훈	민사라	민준하
김지혜A	김지혜B	김진희	김태우	김현진	김종미	박서정	박소현	박연경	박요셉	변해연
김희진	남지혜	동유창	라병순	문은희	민민가	신예영	심규호	양성윤	양정호	양찬비
박미연	박민국	박병훈	박소연	박수경	박은진	오동훈	오유연	원종민	윤수정	이영란
박장혁	박정윤	박주영	박지민	백승희	백지수	이민정	이성민	이소연	이영란	이은혜
백지연	변재승	신성철	심재원	양준섭	염태남	이지혜	이조환	이현주	이혜린	이혜연
오민경	오민선	왕현경	우정은	유미나	유종훈	장서윤	장성훈	장지혜	전동섭	천사무열
유지현	이바름	이승이	이슬기	이승훈	이신애	정수민	정승우	정리태	정지혜	조수민
이윤진	이은혜	이정덕	이정희	이지연	이지윤	조진희	조현수	최민지	최예진	최은빈
이장배	이태윤	이혜원	이화영	임민섭	임유진	한상현	한이래	한정준	한태희	현진희
임지혜	장윤호	전하라	전혜영	전혜정	정나혜	홍진호	황서현			
정성미	정승환	정영옥	정예은	정찬영	조용민	이상 22명				
충현장학생 선발자 양성훈련 (대학원생 · 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 2008년 8월 13일(수)~14(목), 수요2부예배 후										
장소 : 충현기도원										

새가족양육부 7월 수료자(2)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 충현교회에 다니는 이웃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지혜를 내려 주십니다.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화가 날 때도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이제 어디를 가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삶이 역동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이명지)*

♥ 아주 어릴 적부터 충현교회에 다니게 되어 부모님과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위해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제 안에 평안과 안식을 어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참된 안식처가 생길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겠습니다. *(서용원)*

♥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었던 어느 집사님께서 충현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게 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면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주의 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보라)*

♥ 믿음생활에 충실하신 권사님 덕분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교회생활을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참 신앙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사로 격경과 근심보다는 신안 마음이 생

기며 항상 즐겁습니다. *(박정민)*

♥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의로움 분이십니다. 이곳 충현교회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더욱더 마음이 굳건해져서 좋습니다. 새로 맞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걱정 근심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으므로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 되었습니다. *(한선미)*

♥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로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쁜 열매 맺는 가지를 때려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접붙인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옛 사람, 옛 행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같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성미가 살아갈 것입니다. *(안병태)*

♥ 결혼과 더불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그저 까마득하게 느껴지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결혼 전에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믿음생활을 했었습니다. 결혼과 더불어 개종한 셈입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은 기간 동안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지키고 성경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관심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예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진연)*

충현장학생 간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나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게 주셨다. 그것도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나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주어졌다. 천국천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분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죽은 후에만 누리게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나는 영원을 누리고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두 세계를 살고 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원을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내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다. 나는 세상의 나그네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며 살아간다.

(전혜정)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만 들어온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짜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 구하면 해결돼 주실 것이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찾았으니 위하여 시련을 참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나?' 하고 물으셨을 때,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의지가 아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고 나서 저는 예수님을 원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순간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잃게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를 얻게 하시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김소담)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87	이복분	20	청년2부	이월선(5)
1588	김광희	18	청년1부	장선지(16)
1589	이정화	4	청년1부	이한재(3)
1590	유재혁	1	청년1부	
1591	김효민	15	청년1부	이승희(15)
1592	최미현	11	청년3부	유순종(3)
1593	정미현	1	초등부	
1594	이재순	8	청년3부	신명경(9)
1595	변지수	10	중등3부	이예원(10)
1596	김광희	17	청년3부	오종혁(17)
1597	이민동	2	대학부	최영명(2)
1598	김남희	9	청년1부	전채자(14)
1599	이재현	2	청년1부	이한재(2)
1600	오은희	21	청년1부	오부희자(21)
1601	이종미	7	고등부	정명재(7)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